



아트 스페이스 해감
ART SPACE HAERAM

개관 기념전

영남 아트 스페이스 해감 개관 기념전

강릉캠퍼스 KNU

아트 스페이스 **해람** 개관 기념전
ART SPACE HAERAM

인상 印象解纜
해람 확장하는
경계

우리 대학의 문화예술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대학과 지역이 예술을 매개로
만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 기념사 |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정재연입니다.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 「아트스페이스 해람(ART SPACE HAERAM)」의 개관과 개관기념전 「인상해람(印象解纜) - 확장하는 경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은 강원대학교가 춘천·강릉·삼척·원주 4개 캠퍼스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초의 '1도 1국립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한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대학은 각 캠퍼스가 축적해 온 역사와 학문적 강점을 바탕으로 서로의 역량을 연결하고, 새로운 교육과 연구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은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연결하고, 우리의 시야와 사고를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트스페이스 해람」은 이러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대학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우리 대학의 문화예술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대학과 지역이 예술을 매개로 만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릉은 풍부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예술 자산을 품은 도시입니다. 강릉캠퍼스가 오랫동안 쌓아온 예술교육과 창작 역량이 지역의 고유한 자산과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갈 때, 대학과 지역이 문화예술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특히, 조형예술·디자인학과와 패션디자인학과 구성원들이 참여한 개관기념전 「인상해람 - 확장하는 경계」는 아트스페이스 해람이 지향하는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익숙한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장르와 생각이 만나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예술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관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뜻깊은 작품으로 첫 전시를 함께해 주신 참여 작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트스페이스 해람」에서 이어질 전시와 교류가 대학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서로의 경계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강원대학교 총장 정재연





강릉캠퍼스의 예술적 저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키우는
살아 있는 문화공간이자,
강릉의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성장하기를

| 기념사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Art Space 해람’의 개관과 기념전 《인상해람(印象解纜) - 확장하는 경계》의 개최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뜻깊은 개관을 위해 뜻을 모아 주신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장태영 학과장님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작품으로 개관 기념전을 빛내 주신 참여 작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통합 강원대학교의 출범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도약의 기회입니다. 통합은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지우는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축적해 온 가치와 역량을 더 큰 미래로 이어가는 새로운 출발이어야 합니다. 강릉캠퍼스 역시 고유한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며 강원대학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강릉캠퍼스는 오랜 시간 영동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성장하며 교육과 연구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학문적 성취와 구성원들의 헌신은 오늘의 강릉캠퍼스를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예술교육은 문예의 도시 강릉에 위치한 우리 대학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며 캠퍼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형성해 온 주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내 예술관련 학과들은 졸업작품전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에 필요한 학내 공간 부재로 오랫동안 명주예술마당이나 강릉아트센터의 전시공간 등 캠퍼스 밖의 전시관을 대관하여야 하는 상황을 겪어 왔습니다.

Art Space 해람의 개관의 동기는 이러한 학내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의 개관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예술 교육과 창작의 역량을 펼칠 공간을 마련하고, 그 성취가 다음 세대의 새로운 창작과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공간에서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가입니다. 좋은 공간은 수준 높은 전시와 창작, 새로운 기획과 실험이 지속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갖습니다. Art Space 해람이 강릉캠퍼스의 예술적 저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키우는 살아 있는 문화공간이자, 강릉의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개관기념전 《인상해람(印象解纜) - 확장하는 경계》는 그 첫걸음입니다. 새로운 항해를 위해 닻줄을 풀다는 ‘해람(解纜)’의 의미처럼, 오늘의 개관이 우리가 축적해 온 시간과 성취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릉캠퍼스의 역사는 통합 이후에도 새로운 이름 아래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역사와 자긍심을 소중히 계승하면서 우리만의 강점을 더욱 키워, 강원대학교의 발전을 견인하는 경쟁력 있는 캠퍼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Art Space 해람이 그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Art Space 해람의 개관과 《인상해람(印象解纜) - 확장하는 경계》의 개최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총장 박덕영



바다처럼 넓게 열리고,
새로운 빛처럼 가능성을 비추는 공간

| 기념사 |

새로운 예술의 문을 열며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에 새로운 예술의 공간, 아트스페이스해람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술체육대학을 대표하여 뜻깊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은 지식을 배우고 연구하는 곳인 동시에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특히 예술은 익숙한 것에 질문을 던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트스페이스해람의 개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의 마련을 넘어, 대학의 교육과 창작이 지역의 문화와 만나고, 예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 대학과 지역이 소통하는 열린 문화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예술체육대학은 다양한 예술 분야의 교육과 연구, 창작 활동을 통해 미래의 예술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서로 다른 전공과 시선이 만나고, 전통과 동시대의 가치가 교류하며, 예술과 다양한 분야가 경계를 넘어 연결될 때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아트스페이스해람이 바로 그러한 만남과 연결의 공간으로 자리하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작품으로 세상에 선보이는 소중한 무대가 되고, 교수와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예술적 실험과 담론을 펼치는 공간이 되며, 지역사회에는 동시대 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릉은 바다와 산, 오랜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바다가 경계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듯, ‘해람(解纜)’이라는 이름처럼 이 공간 역시 넓은 세계를 향해 열린 예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릉의 자연과 삶 속에 축적된 시간과 기억이 예술가의 시선과 만나 새로운 작품과 이야기로 탄생하고, 그것이 다시 지역사회와 공유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개관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질 전시와 작품, 창작과 대화, 그리고 사람들의 만남이 아트스페이스해람 만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바다처럼 넓게 열리고,
새로운 빛처럼 가능성을 비추는 공간.

아트스페이스해람이 예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대학과 지역,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소중한 문화예술의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아트스페이스해람의 아름다운 시작과 지속적인 성장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각자의 물길을 따라온
예술가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예술적 여정을
떠나게 합니다.

| 전시서문 |

인상해람(印象解纜) - 확장하는 경계

강원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학과 교수 신 승 철

항해를 떠나는 배는 먼저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리고 항로를 이탈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애초에 안전한 육지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난파선 이라면, 배를 고쳐 가면서 자신이 흘려온 물길을 찾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해는 계획된 경로와 그렇지 못한 여정 사이의 어딘가에서 항로를 만듭니다.

아트스페이스 해람 개관전 《인상해람(印象解纜) - 확장하는 경계》는 이처럼 지나온 길 위에서 새로운 항로를 모색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온 서로 다른 전공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선보이고, 이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인상(印象)’은 ‘새겨진 형상’을 뜻합니다. 어딘가에 새겨진 흔적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이러한 자취를 남기고, 전시장에 모인 작품들은 이 예술적인 궤적들을 교차하게 합니다. ‘해람(解纜)’은 정박한 배의 줄을 풀어 항해를 시작하는 행위입니다. ‘인상’이 시간을 견뎌온 형상이라면, ‘해람’은 그 흔적을 품고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서는 예술적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인상해람(印象解纜) - 확장하는 경계》전은 각자의 물길을 따라온 예술가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예술적 여정을 떠나게 합니다. 저마다 그려 온 궤적들이 전시장으로 이어지고, 저 멀리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는 새로운 경로를 구성할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술적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장소가 떠 다니는 배 위라면, 지나온 길과 예상치 못한 여정 사이에서 끝없는 항해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부디 이 전시가 지난 우리의 여정을 회고하고, 다시금 밧줄을 풀고 떠나는 예술적 여정의 의미 있는 일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새로 개관하는 이 전시장과 이를 기념하는 전시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교수님들, 강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트스페이스 해람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항해가 ‘경계 너머’ 저 멀리 이어지길 바랍니다.

인상
해람

印象解纜

화랑하느
경계

참여작가

- | | |
|-----|-----|
| 강남욱 | 구본아 |
| 권진 | 김수령 |
| 김우진 | 김종선 |
| 김지민 | 박경민 |
| 박서연 | 백정기 |
| 서해영 | 서혜수 |
| 송신규 | 엄소희 |
| 오종보 | 우현리 |
| 이병호 | 이연지 |
| 이예선 | 이창민 |
| 이창훈 | 이혜진 |
| 임노식 | 장태영 |
| 전혜진 | 정명권 |
| 정주란 | 정지현 |
| 최태훈 | 하연수 |
| 한선미 | 허정원 |

(32명)

강남옥

흔적 Vestige

25×38×100cm • Statuario Carrara, Nero Belgio, Bronze, LED, etc. • 2026

<흔적>은 대리석과 빛의 물성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상징에 관한 이야기들을 암시한다. 누군가 내민 듯이 돌출된 사과, 표면에 상처가 새겨져 있다. 완전성을 추구해 온 대리석 작품에 직접적으로 균열을 내어 작품의 주제인 '흔적'을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이 사과의 상처는 성서 속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남긴 인류의 근원적인 결핍과 유한성이라는 맥락을 드러낸다. 반면, 사과 위로 곧게 뻗어 오르는 빛은 불투명한 대리석을 투과하며 어둠을 밝히는 '계시'나 '영성'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에 은은하게 비치는 빛은 생명감을 부여하며, 상처 입은 존재가 품은 내면의 숭고함과 회복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동시에 인류가 역사 속에서 사과라는 존재에 끊임없이 부여해 온 거대하고 무거운 상징들이 결국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과의 '무의미한 상징성'을 보여준다. 사과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트로이 전쟁의 황금사과, 뉴턴의 만유인력, 혁신을 상징하는 애플社의 로고 등 인류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수많은 역사와 의미가 덧씌워진 사과일지라도 결국 본질은 쉽게 상처 입고 썩어 없어질 하나의 연약한 유기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과거 영원성을 추구했던 대리석으로 유한한 사과를 구현함으로써 영원과 유한, 신화와 현실, 상징과 실재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박제된 신화와 상징의 틀을 깨고 관람자 앞으로 돌출된 사과는 거대한 이념들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생명력과 남겨진 필멸의 흔적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하게 되는 가치임을 제시한다.



구본아

벽에 쓰는 시 3 **poetry on the wall**
160×100cm • 한지꼴라쥬위에 먹과 채색, 금분, 은분 • 2025

벽에 새겨진 흔적들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거리를 환기시키는 자연의 기호이자 한편의 시이다.
나는 지금 벽을 통해 시간성을 깨닫고, 시간의 무게를 깊이 있게 생각한다.
역사 속에서 증명해 온 생명의 힘과 죽음이라는 소멸을 표현하는 작품들을 통해 인간의 삶을 위로하고
미세먼지와 초고밀도 회색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불안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의 단서를
발견하게 하고 싶다.



권진

강릉뿔 To love Gangneung
160×100cm • Fabric • 2026

강릉을 담은 의상
강릉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의상



김수령

생(生) Life

130.3×162.2cm • 흙물, 유리프리트(빠띠뜨베르 유닛), 아크릴물감, 스프레이 글루, 캔버스, 금박 • 2025

생(生)은 흙과 유리라는 상반된 물성을 통해 생명의 생성과 끊임없는 순환의 에너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흙은 시간의 축적과 기억의 흔적을 품고, 유리는 빛을 머금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낸다. 화면을 가득 채운 원형의 반복은 세포의 증식, 생명의 호흡, 태양의 순환, 그리고 기억이 확장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완성된 생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생(生)'의 순간에 주목한다. 서로 다른 물성이 만나 새로운 질서를 이루듯, 다양한 존재와 경험 또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 간다.

이는 하나의 출발이자, 미래를 향해 확장되는 생명의 에너지에 대한 은유이며 떠오르는 강렬한 태양빛의 생명력을 표상하였다.



김우진

마지막 기록보관소: 기록 A-1#2 부분 The Very Last Shelter:Document A-1#2 part
200×200×130cm • 나무, 수동 오르골, 카펫 • 2025

<마지막 기록 보관소> 시리즈는 전기가 사라진 세상을 상상한다. 그러나 굳이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들은 이미 디지털 보존의 기회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라지는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예술적 접근을 시도한다.

노르웨이 스발바르(Svalbard)에 위치한 국제 종자 저장고는 인류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전 세계의 종자를 보관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 시리즈는 이와 유사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록 보관소이자 언어의 ‘마지막 피난처’를 상상한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공동체의 정체성과 기억을 보존하는 핵심 매개체다. 하지만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7,000개의 언어 중 2,500개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2주에 하나꼴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언어의 소멸은 단순한 어휘의 상실을 넘어 지식, 공동체의 서사,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는 곧 미래와 맞닿아 있을지 모를 지혜가 단절되는 순간이며, 각 공동체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지식의 소실은 개인의 정체성은 물론 이들을 지탱하는 생태계까지 위협한다.

시리즈의 작업은 각 언어가 가진 고유한 억양과 음운적 특성을 수동 오르골 악보로 변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실제 화자의 말은 하나의 음으로 변환이 되고, 이를 관객이 오르골을 돌리며 재생시키며 그들의 이야기를 상상한다. <마지막 기록보관소 :기록 A>는 일본 홋카이도의 아이누어를 바탕으로 그들의 구전 설화를 바탕으로 이를 청각적 기호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들의 실제 목소리는 바닥에 함께 설치 된 QR코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김종선

After the Skin
120×90cm • Print • 2026

〈After the Skin〉은 의상을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변형한 작품이다. 이 작업은 피부를 신체의 끝이자 고정된 경계가 아니라, 인간과 기술, 자연이 서로 접속하고 변화하는 유동적 인터페이스로 바라본다. 백색의 인공 외피 아래 드러난 기계 구조와 증식하는 식물은 유기체와 인공물, 내부와 외부, 생명과 비생명의 구분이 더 이상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 갈라지고 열린 표면은 손상이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과 정체성이 생성되는 과정이며, 의복은 몸을 감싸는 보호막을 넘어 서로 다른 존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확장된다. 본 작품은 기술, 특히 AI와의 융합,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창조성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며, ‘피부 이후’의 신체를 통해 인간 중심의 경계를 벗어나 자연과 기술이 공생하는 새로운 존재 가능성을 질문한다.



김지민

흐르는 문자 **Flowing Script**
841×1189cm • silk, printed organza • 2026

〈흐르는 문자〉는 의복 위에 머무는 문자와 보이지 않는 신체의 감각을 함께 바라본 작품이다. 흰색 원피스 드레스는 고요하고 절제된 표면을 이루고, 그 위를 따라 흐르는 문자 프린트 오간자는 바람과 기억의 파편처럼 가볍게 겹쳐진다. 투명한 소재 위의 문자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읽히기 전의 감각, 혹은 사라지기 직전의 기록처럼 존재한다. 가는 가지의 형상은 부재하는 몸의 존재를 암시하며, 문자와 섬유, 신체와 공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의상이 지닌 조형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박경민

비상15 Ascent15

162×130cm • 광목천에 목탄,먹,아교,분채 • 2015

나의 작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숲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인간의 기억과 흔적, 그리고 내면의 세계가 투영되는 공간이다.

새떼의 등장은 인간의 집단적 움직임과 도약을 은유한다. 그들의 비상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는 상승의 과정이며, 이는 인간이 추구하는 희망과 자유, 초월을 상징한다.

나는 자연의 순환성과 인간의 흔적을 교차시키며, 기억 속 장면과 마스크, 책, 이야기들을 숲의 풍경 속에 결합시켰다. 이를 통해 화면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새로운 공간으로 확장된다.

나의 작업은 숲과 새떼를 통해 인간 존재의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드러내며,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비추는 관계 속에서 궁극적인 물음을 던진다.



박서연

빨간 달 red moon
162.2×130.3cm • Acrylic, oil on Linen • 2026

무협지 한 권이 나를 바꿨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 여겼던 세계에서, 점점 선과 악, 업과 인연, 변화와 기적이 맞물리는 세상의 이치를 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서사를 쫓으며 현실의 모순을 해소할 실마리를 찾아 이미지로 바꾸어낸다.

나의 회화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디로 향하는가"를 묻는 서사적 여정으로, 믿음과 에너지, 세계의 질서를 다루는 수행적 회화다. 동양적 세계관과 무협 서사에 반복되는 '수행-변화-초월' 구조를 토대로, 회화가 현실의 모순을 해소하고 세계를 새롭게 구성할 힘을 탐구해왔다.

<점들의 게임>(2026)은 전작 <점을 쫓는 자>(2025)의 서사를 확장해, 세계를 이루는 근원 단위인 '점'에 집중한다. 점은 감정·관계·시간이 응축된 최소 단위이며, 이를 찍고 쌓고 연결하는 행위는 나에게 세계를 다시 쓰는 주술적 수행이자 언어적 실험이다.

무협지·판타지·SF 속 선악과 업, 인과응보가 실제로 행해지길 바라는 상상에서 출발해, 그 상징과 서사를 드로잉·영상·입체·회화로 변환한다. 점을 반복적으로 쌓고 겹쳐 공간과 시간의 층위를 만드는 행위는 수행적 경험이자 사유의 기록이며, 관객은 점을 따라가며 상상적 서사를 체험하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초월적 존재와 조력자, 고난, 권선징악의 구조는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정의와 질서를 상상 속으로 끌어와 시각화한다. 점들의 배열과 '원하는 것으로의 변신' 이미지의 중첩은 생성과 소멸, 변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2026년, '점'을 매개로 인간의 내면과 현실 너머의 상상 세계, 서사적 시간과 물리적 공간을 함께 탐색하며, 작가와 관객이 상상과 사유를 나누는 장을 마련한다. 점은 부조리한 현실을 각자의 신념 형태로 담아내는 매개체다.



백정기

바셀린 헬멧 시리즈 **Vaseline Helmet Series**
84×56cm×3점 • C-print • 2007

바셀린을 피부 위에 두껍게 발라 투구와 갑옷의 형태를 만든 2007년 시리즈와, 건물의 갈라진 틈을 바셀린으로 메운 2008년 설치작업은 작가에게 상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닌 바셀린의 보호와 치유의 속성을 시각화한 작품이다. 유년기 화재사고로 왼손에 화상을 입은 작가는 상처 부위에 바셀린을 발라 갈라진 피부를 보호하고 회복했던 경험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화재, 화상, 병원, 치료와 같은 개인적 경험과 결합된 바셀린은 2007년 작업에서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는 상징적 보호구로 형상화된다. 또한 바셀린의 어원이 색슨어 ‘wassor(물)’와 그리스어 ‘oleon(기름)’에서 유래했다는 점은 작업의 의미를 더욱 확장한다. 바셀린은 물을 포함하지 않는 고체화된 기름이지만, 피부에 기름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막고 상처 치유에 적합한 습윤 환경을 유지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작가의 작업에서 바셀린은 생명과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물의 치유적 의미’를 상징하는 메타포로 기능한다.



서해영

산에서 조각하기-삼각산 조각하기 Sculpting in a Mountain-Mt. Samgak

작품1. 산에서 조각하기1-삼각산 조각하기(진달래 능선에서)

-사진 44.5×33.5cm • 칼라사진, 디아섹 액자 • 2014(2023년 재제작)

-조각 52×32×24cm • 세라믹 • 2012(2025년 재제작)

작품2. 산에서 조각하기1-삼각산 조각하기(진달래 능선에서)

-사진 33.5×44.5cm • 칼라사진, 디아섹 액자 • 2014(2022년 재제작)

-조각 24X32X52cm • 백자토 위에 투명 유약 소성 • 2012(2025년 재제작)

작품3. 산에서 조각하기1-삼각산 조각하기(용암문에서)

-사진 33.5×44.5cm • 칼라사진, 디아섹 액자 • 2014(2022년 재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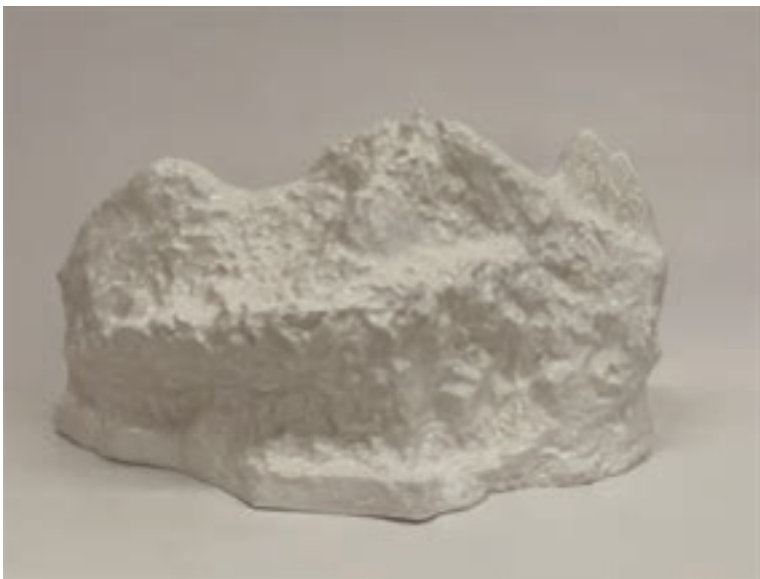
-조각 26×50×27cm • 백자토 위에 투명 유약 소성 • 2012(2025년 재제작)

작품4. 산에서 조각하기1-삼각산 조각하기(작업일지)

-소책자 182×241mm • 170페이지

“산에서조각하기”는 1~2년에 걸친 장기프로젝트로서, 관념적이고 결과중심적인 조각을 거부하기 위해 작가 자신의 신체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중심적 조각프로젝트이다. 스스로 운반이 가능한 재료들을 가지고 등산을 하고, 산에 올라 조각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나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 재료의 양과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관습적인 조각의 방법론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등산이라는 일상적인 노동과 조각하기라는 미술의 노동을 결합한다. 나에게 중요한 두 영역을 결합하는 것은 내 삶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일상과예술의 경계를 상호연결할 수 있게 만들고, 순수한 예술의 영역을 지지하는 전통적 조각의 입장을 위반하는 것이다.



서혜수

푸른 꽃 The Blue Blossom

15×15×9cm (the size of each) • Porcelain, Ceramic pigment • 2023

전통 상감 기법의 현대적 재해석과 조형적 변주

본 작업은 한국 전통 도자 기법인 **'상감(象嵌)***의 미학적 가치를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하고 학술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이다. 전통 상감이 지닌 서정적인 장식성을 넘어, 선과 색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통해 기물 표면에 새로운 시각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작업의 출발점은 기물 전면에 일률적인 선들을 정교하게 음각하는 행위이다. 기물의 곡면을 따라 흐르는 규칙적인 선들은 입체 위에 시각적 리듬을 부여하며, 공간을 분할하고 구조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음각된 미세한 홈에 다른 색상의 점토 슬립(Slip)을 채워 넣음으로써 선과 색의 대비는 극대화된다. 슬립이 기물 표면과 일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음각의 깊이는 평면의 선으로 치환되고 물리적 경계는 사라진다. 이처럼 전통 상감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밀한 선의 흐름과 절제된 색채의 조화는 작품에 현대적이고 정제된 에너지를 부여한다.

결과적으로 이 작업은 전통 기법의 단순한 재현에 그치지 않고, 규칙적인 선의 변주와 색채의 대비를 통해 전통의 현대적 변용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려는 시도이다.



송신규

허물 The shedding

193×259cm • 캔버스에 유채 • 2025

나의 작업은 쉽게 지나치는 사물과 풍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움직임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마른 것, 낡은 것, 허물어진 것을 생명의 끝이라 여기곤 한다. 그러나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바라보면, 그 안에서도 생명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미세한 변화와 흔적을 관찰하며, 익숙한 시선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를 질문한다.

이번 작품은 말라붙은 겉가죽에서도 생명이 이어지고 번식하는 경이로움에서 출발했다. 메말라 보이는 껍질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품고 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시간과 생명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나에게 작업은 결과를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작은 사물 하나에도 수많은 시간과 관계가 스며 있으며, 우리는 잠시 멈춰 바라볼 때 비로소 그것들을 마주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생명의 지속과 순환을 통해, 끝이라 여겼던 자리에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엄소희

시간의 결을 수놓다 **embroider the Texture of Time**

90×90cm • 스카프, 실크 • 2026

'시간의 결을 수놓다'는 과거로부터 전해진 시각적 유산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적 감각의 조화로운 공존을 탐구한다.

화면의 중심을 비껴가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란은 한국의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꽃으로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부귀영화'와 '생명력'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왔다. 나의 작업은 이 익숙한 자연의 형상 위에 디지털적인 선(Line)의 변주와 화려한 픽셀의 파편들을 수놓은 듯 엮어내어 전통의 회화적 표현이 가진 정적인 아름다움을 역동적인 현대적 에너지로 치환하고자 했다. 모란의 잎사귀와 꽃잎 위에 엮어진 다채로운 색실 스티치들이 마치 가상 세계의 실로 시간을 꿰맨 듯한 느낌을 준다.

푸른 청록색의 기하학적 면 분할과 투명하게 비치는 차가운 푸른 잎사귀들은 따뜻하고 화려한 모란의 붉은 빛과 대비를 이룬다. 이는 유기적인 자연과 인공적인 인위적인 구조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하나의 스카프(대칭과 면의 조화)처럼 얹혀 들어가는 현대적 유토피아를 보여준다.

이 작품을 통해 관람객이 과거의 상징적 미학이 현대라는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호흡하고 재탄생하는지 시각적, 감각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란다.



오종보

에너지 energy
39×59×3cm • 도자기 • 2024

나는 작업에 제작과정과 행위에서 인간에 삶과 속성들을 느끼고, 빚대어지는 감정들을 흙 또는 도자기라는 재료를 통해 표현한다.

나의 작업은 조선 백자 달 향아리의 제작방법에서 시작된다. 두 가지 넓은 그릇 형태를 하나는 온전하게 또 다른 하나는 뒤집어서 붙이는 작업으로 하나의 구(동그라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로 모아지기까지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으로 완성이 된다.

구(동그라미)는 개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이 된다. 그 안은 무언가를 담기도하고, 어둡고 푸른색은 내면에 깊이와 신비성을 표현한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자유로운 선은 어떠한 존재성이며, 인간의 삶, 감정, 속성 등을 회화적으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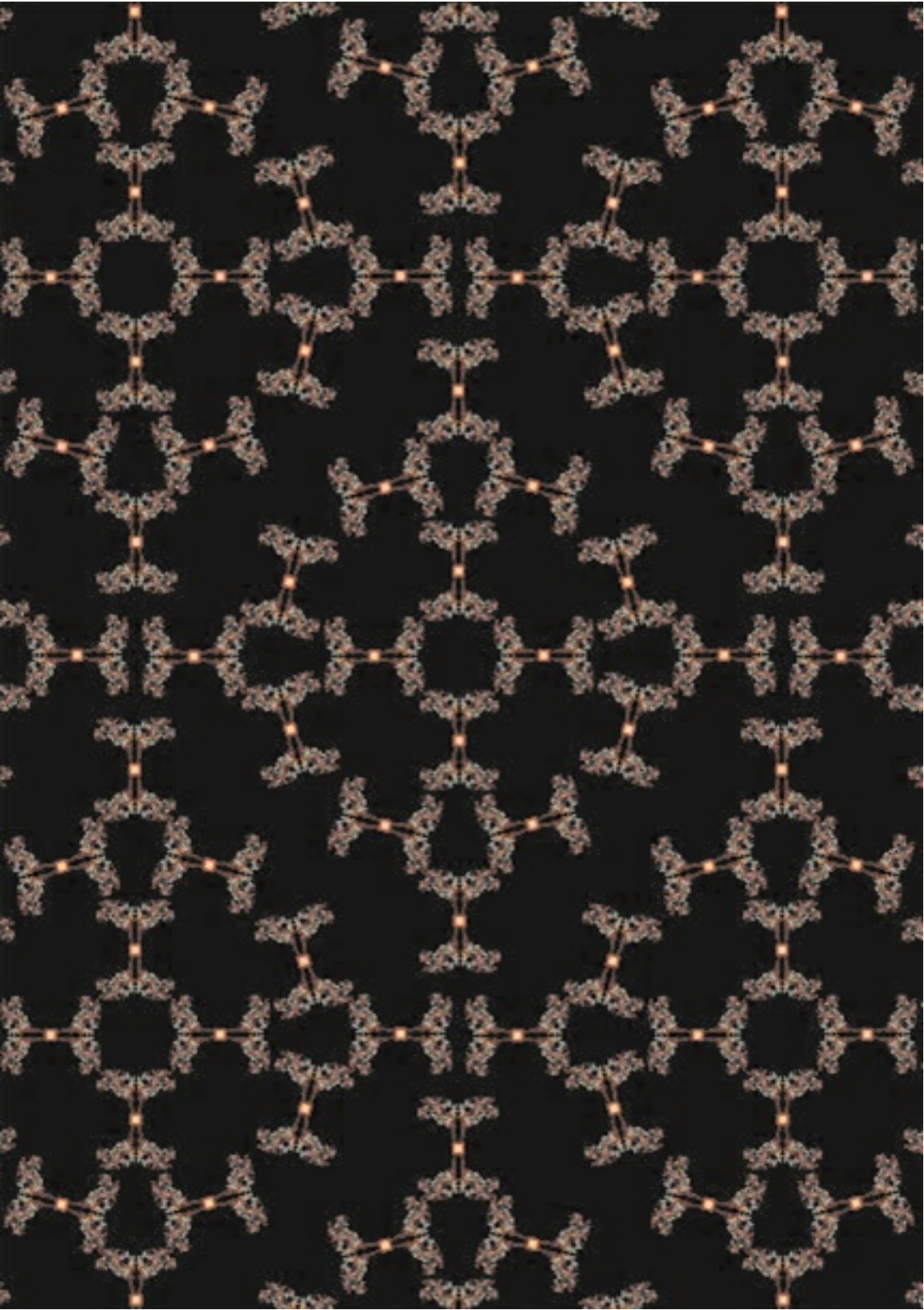
나는 도자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물성과 전통적인 이야기를 예술 그 자체로 봐주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다. 도자의 역사와 이야기 속에 우리의 정서적인 '美'에 대해 고민하며,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인간의 감정과 속성을 '삶'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드로잉으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다.



우현리

Deconstruction and Recombination
60×850cm • Felt & DTP • 2026

나의 작업은 하나의 모티프가 지닌 형태와 구조를 해체하고,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익숙한 형태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부분적으로 나누고, 겹치고, 반복하며 재구성 함으로써 또 다른 조형적 가능성을 찾아가고자 한다. 해체된 형태들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시 만나며 서로 다른 리듬과 균형을 만들어낸다. 같은 모티프에서 출발하더라도 배열과 크기, 방향, 중첩의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와 패턴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형태를 변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익숙한 이미지 안에 숨어 있는 새로운 질서와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의 작업은 해체와 결합, 반복과 변주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모티프가 다양한 시각적 언어로 변화하고 확장되는 가능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병호

Forest Box
55×45×36cm • Acrylic on sculpture • 2025

실재하는 조각의 톤과 환영적 이미지의 톤이 공존할 때 어떤 감각을 드러내는지 탐구하는 작업이다.



이연지

황혼의 기하학 **Geometries at Dusk**
32×43cm • Digital Print on Fine Art Paper • 2026

황혼의 기하학(Geometries at Dusk)은 패션의 조형성과 자연의 풍경을 기하학적 언어로 재해석한 디지털 아트 작품이다. 인물의 실루엣은 단순한 삼각형과 사각형의 구조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배경의 원형과 곡선은 해가 지는 순간의 빛과 공간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화이트와 블랙의 대비는 절제된 미니멀리즘을, 오렌지와 딥 블루의 강렬한 색채는 황혼이 만들어내는 감성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화면 곳곳에 배치된 식물 형태의 추상적 오브제는 자연과 인간, 패션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은유하며, 기하학적 질서 속에서도 유기적인 생명력을 드러낸다.

이 작품은 단순한 형태와 제한된 색채 안에서도 깊은 공간감과 서정성을 구현함으로써, 관람자가 자신만의 해석과 감성을 투영할 수 있는 여백을 남긴다. 작품은 '형태의 단순화가 감성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조형 요소를 통해 최대한의 시각적 울림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예선

선_밤하늘-00 Line_night sky-00
1000×500cm • ceramic • 2023

도자조형물에 빛을 투사하여 생성된 그림자를 하나의 화면 안에 중첩함으로써, 실재인 '조각물'과 그로부터 파생된 '그림자'를 함께 제시한다. 이 작업은 실재가 허상이 되고, 허상이 다시 실재처럼 기능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짜이며 무엇이 가짜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림자는 조각물이 존재할 때에만 생성되는 현상이다. 원본인 조각물이 사라진다면 그림자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관계를 강한 빛을 통해 시각화하며, 조각물을 '원본'으로, 그로부터 파생된 그림자를 '복제'의 은유로 표현하였다. 그림자는 원본과 동일한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빛의 방향과 각도에 따라 끊임없이 변형되며 결코 원본을 완전하게 재현하지 못한다. 이는 복제가 원본의 주체성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는 현실과 가상, 그리고 실제의 나와 SNS 속의 또 다른 나를 동시에 살아간다. 가상의 나는 현실의 나를 기반으로 존재하지만, 현실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그림자는 조각물을 전제로 존재하지만, 조각물과 동일한 존재는 아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원본과 복제, 주체와 객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어느 한쪽의 우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성을 인식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할 때 비로소 더욱 풍요로운 세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의 작업은 실재와 허상, 원본과 복제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서로를 비추며 함께 존재하는 합일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창민

Strokes_02_2026
145×141cm • 펜 드로잉, 실크스크린 • 2026

하나의 획에서 시작한다. 획 하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어서, 같은 동작을 수없이 되풀이해 쌓는 동안에야 면이 되고 형태가 된다. 나는 전체 윤곽을 먼저 정해두고 메우지 않는데, 작은 획과 선들이 모인 화면이 점점 채워지며 천천히 차오르는 쪽을 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성된 작품은 미리 설계된 그림이라기보다, 작가에 의해 지극히 즉흥적이지만 오랜 시간이 겹겹이 얹은 자국에 가깝다. 획, 선을 하나씩 더하는 일은 반복적인 손짓의 끝없는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그 더듬의 과정 속에서 밀도가 발생한다.

가까이서보면 제각기 흔들리는 선이고멀리서는 하나의 질감과 덩어리로 묶이는, 간격과 거리의 차이가 작업의 바탕이다. 그 위에 나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엮는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오래 쌓아 만든 바닥과 달리, 이 도형들은 한 번에 결정되어 화면을 구성한다. 복잡하게 뒤엉킨 배경들 위로 단순한 도형이 한 화면에서 마주치는 순간을 나는 보고 싶었다.

획, 선이라는 한 가닥으로부터 출발한 그림이 끝내 가장 단순한 도형과 부딪친다. 상반된 둘이 밀고 당기는 긴장속에서 묘한 즐거움을 느낀다.



이창훈

한강 #05 Han River #05

100×176cm •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 2024

〈한강〉은 작가가 사계절에 걸쳐 한강변을 찾아 물을 길어 오는 행위에서 시작된다. 한강의 물에는 강을 따라 세대를 거듭하며 살아온 수많은 삶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채집한 물은 수석의 형태를 본뜬 형틀에 부어 얼리고, 결정화된 얼음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전통적으로 수석은 하나의 돌을 여러 층위의 가치와 의미를 통해 바라보는 행위인 동시에, 의미가 부여된 대상을 소유하려는 인간 욕망의 역설을 드러낸다. 얼어붙은 수석은 마침내 녹기 시작해 다시 물로 돌아가는 경계에 이른다. 작가는 바로 이 찰나의 전이 순간을 사진으로 포착한다. 한편 사진이라는 매체 역시 같은 욕망과 맞닿아 있다. 필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붙잡아 남기려는 욕망이다.

처음 마주한 〈한강〉은 거대한 설경처럼 보인다. 그러나 관람자가 이 광활해 보이는 풍경이 실은 작은 얼음 수석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지하는 순간, 또 다른 풍경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녹아가는 얼음 위로 번지는 균열과 한강물에 실려 왔거나 캐스팅 과정에서 유입된 불순물은 보다 위태로운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 내며, 그 안에는 삶의 흔적과 복잡성이 조용히 내재되어 있다.

사진은 대형 뷰 카메라와 8×10인치 포지티브 필름으로 촬영되었으며, 그 자체로 점차 사라져가는 아날로그 사진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혜진

더 그리다 **The Draw**
180×180cm • Bulk Continuous Filament Yarn • 2026

나의 작업은 추상 드로잉의 움직임과 리듬을 터프팅 기법을 통해 섬유의 물성으로 확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종이 위에 남겨지는 선이 순간적인 몸의 움직임과 감각의 흔적이라면, 실로 이루어진 선은 반복적인 제작 과정을 거쳐 공간 속에 축적되며 새로운 조형성을 형성한다. 드로잉이 지닌 즉흥성과 자유로운 흐름은 실의 질감과 밀도를 통해 촉각적인 경험으로 전환되고, 평면적 이미지는 미세한 높이와 깊이를 획득한다.

작업 과정에서 터프팅은 단순히 러그를 제작하는 기술이 아니라 드로잉을 수행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다. 실은 선을 이루는 조형 요소가 되며, 선의 방향과 중첩, 파일의 높이와 밀도, 색의 대비를 조절하여 화면의 리듬과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빛의 방향과 관람자의 시선에 따라 표면은 다양한 음영과 질감을 드러내며, 작품은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변화하는 감각으로 인식된다.

이번 작업은 기능적 오브제로 인식되는 러그를 조형적 매체로 바라보며, 회화와 섬유,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탐구하는 시도이다. 익숙한 드로잉의 개념을 실이라는 재료로 확장하여 선이 지닌 물성과 시간성을 드러내고, 시각적 경험에 촉각적 상상을 더하는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섬유는 단순한 재료를 넘어 드로잉의 감각을 담아내는 조형 언어로 기능하며, 관람자는 선과 질감이 만들어내는 공간적 경험을 새롭게 마주하게 된다.



임노식

나무 Tree

190×117cm • oil on canvas • 2025

임노식은 지역과 장소, 더 좁게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풍경을 그린다. 최근 3년간 그는 여전히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고향 여주의 풍경을 주요한 작업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작업은 작은 지역 안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과 비생명,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를 어떻게 지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탐구한다.

그는 장례문화, 다문화, 농경문화를 주요 소재로 삼아, 함께 길러지고 자라나며 사라지고 마침내 땅에 묻히기까지의 시간 속에서 서로를 떠받치는 관계의 서사를 회화로 풀어낸다. 작업의 중요한 전환점은 3년 전 찾아왔다. 이전까지 작업실이라는 장소를 출발점으로 삼아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하는 것들의 관계를 그려왔다면, 이후에는 시선을 고향 여주로 옮기며 그곳에서 대대로 반복되어 온 삶의 형식들로 작업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장태영

和契
324×130cm • 한지 위에 수묵 • 2012

‘화결(和契)’은 자연과 인간, 대상과 자아가 서로 어우러지는 관계인 ‘和’와, 그 관계가 흐르고 순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흔적과 공명의 ‘결(契)’을 의미한다.

물에 비친 형상이 바람과 빛에 따라 나타나고 흩어지듯, 자연의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간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소멸한다.

화면에 반복되고 중첩되는 점과 선, 물결과 같은 형상은 이러한 자연의 흐름과 순환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는 자연의 외형을 재현하기보다 대상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변형되는 기억과 심상을 드러내기 위한 조형적 표현이다.

결국 ‘화결’은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간의 삶과 인식의 변화를 바라보고, 존재들이 서로 관계하며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남겨지는 흔적과 그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표현한 작업이다.



전혜진

계(界) **Ridgeline**
25×25×23cm • Paper Clay •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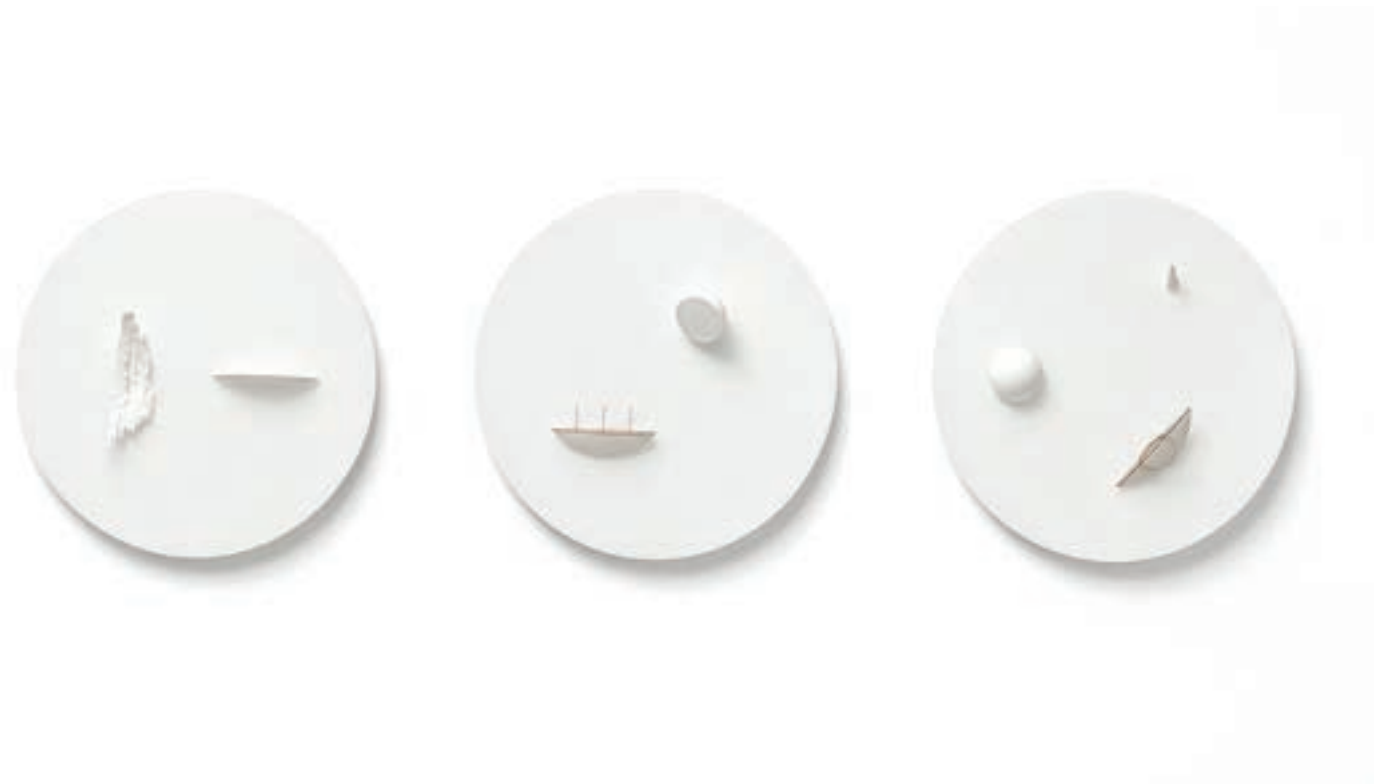
나는 백자달항아리의 세로선을 내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형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경계 위에, 내가 선을 더한다.
자연의 선과 나의 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界'가 생겨난다.



정명권

잠식 **encroach**
330×330×60cm • 도자, 유리, 금속, 나무 • 2019

인간의 삶에서 기억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정체성은 누구에게나 형성되지만, 각자가 경험한 시간과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의 작업은 개인의 기억이 변화하고 축적되며 정체성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조형적으로 탐구하는 데서 시작한다. 작업에서는 기억의 형성과정을 기명, 보유, 재생, 재인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기억은 고정된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선택되고 변형되며 새로운 이미지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유동성은 반복적으로 제작된 유닛과 각기 다른 배치를 통해 표현된다. 각각의 유닛은 하나의 기억이 지닌 파편과 흔적을 상징하며, 반복과 차이를 통해 기억이 축적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캐스팅으로 복제된 형태들은 기억의 전체와 부분, 강조와 생략, 평면화와 단순화의 과정을 상징한다. 표준화된 유닛들은 서로 다른 관계를 이루며 배치되고, 작품 위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는 빛과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이를 통해 정체성이 고정된 형상이 아니라 환경과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구조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규칙적인 복제와 우연적으로 흘러내리는 오버드롭 표현을 병치하여 기억 속에 공존하는 필연성과 우연성을 나타냈다. 기억은 생성과 보존, 회상과 재해석의 과정을 반복하며 서로 연결되고 융합된다. 그 과정에서 기억은 이전과 다른 이미지로 재창조된다. 결국 정체성은 명확한 시작과 끝을 가진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기억의 연결과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형성되는 생성의 구조이다.



정주란

화의(花衣) Hanbok in Bloom
45×160cm • 한지, 오간자 • 2026

전통복식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을 지향한다. 한복이 지닌 구조와 비례, 여백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소재와 조형적 표현으로 확장하며, 전통이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을 탐구한다. 꽃과 투명한 오간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생명력과 순수함을 상징하며, 한지의 질감과 풍부한 주름을 통해 전통 소재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조형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화의(花衣)」는 전통 한복의 조형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상의는 한복 저고리의 깃을 모티프로 하여 투명한 오간자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치마 허리 말기에는 꽃 장식을 배치하여 상의와 치마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꽃이 피어나는 듯한 유기적인 흐름을 연출하였다. 또한 치마는 한복 치마의 주름을 응용하여 입체적인 레이어를 구성하였으며, 한지를 사용하여 소재 특유의 질감과 물성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



정지현

매화도-피어나는 숨 Plum Blossom Tree-Flowering Pulse
145×112cm • acrylic, ink and oil on canvas • 2026

내 작업은 육체에 새겨진 기억, 지각, 감각을 바탕으로, 내밀하게 상통하는 몸과 자연의 생명적 결속을 유기적인 풍경의 형태로 번안하려는 시각적 탐구로부터 비롯된다. 실재와 상상의 혼재가 발현시킨 이 규정할 수 없는 풍경은 몸과 풍경의 파편들, 그리고 그것들의 전위, 변형, 혼성, 증식을 거쳐 그 표면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끊임없이 이행(移行)하는 풍경의 표면은 고정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대한 자연의 흐름 가운데 '나'라는 존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성 과정 속에 있음을 환기한다.

이 유기적 풍경은 화면의 표면과 심층을 교차시켜 가벼운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다. 환영 같은 흐릿한 식물·신체 이미지 위로 정교하게 묘사된 곤충, 돌기, 얼룩 등이 잠식하며 출현과 사라짐을 유기적으로 결속한다. <매화도-피어나는 숨 (Plum Blossom Tree-Flowering Pulse)>은 아스라이 표현된 나무의 흐릿한 형상이 마치 육체 내부의 감추어진 맥(脈)처럼 캔버스 위로 배어 나오고, 그 위를 선명하고 정교하게 묘사한 붉은 점들이 뒤덮으며 생명력 넘치는 꽃으로 피어난다.

이러한 작품의 표면은 단순한 시각적 평면을 넘어 '실재와 환상', '안과 밖', '표피와 살', '매혹과 혐오' 등 상반된 양극의 세계를 잇는 일종의 상징적 봉합의 장소이다. 이 표면을 'flesh-surface'라 명명하고, 경계의 긴장과 감각적 대립을 융합하는 과정을 '촉각적 시각성(haptic visibility)'과 연결하여 연구하고 있다. 관객은 이 경계를 넘나들며 고정된 인식과 실재 사이의 간극을 경험하고, 주체의 유동성과 존재의 실재를 자각하게 된다.



최태훈

그림자(글라돔, 마리우스) Shadow(GLADOM, MARIUS)
120×116.5cm • 캔버스에 아크릴 스프레이 • 2021

최태훈은 사물과 인간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특정한 변화를 일으켜 기능주의 너머를 조망한다. 사용자로서의 인간과 물건이 맺고 있는 규격화된 질서에서 한 발 떨어져, 우연적이고 자생하는 상호 관계를 모색한다.

<그림자> 연작(2021-)은 평면과 입체가 서로의 존재 조건이 되는 작업이다. DIY 가구의 유닛을 조형적으로 관찰하며 캔버스 위에 배치한다. 기능과는 무관하게 구성된 기성품의 질서 위에 컬러 스프레이가 무질서하게 분사된다. 캔버스에서 탈각된 유닛들은 다시 조각의 조형 요소로서 새롭게 조합된다. <그림자> 연작에서 평면과 입체 작업은 필연적으로 연동하지만, 각자 고유한 개별로서 존재한다.



하연수

풍경 Landscape

130×130cm • korean paper, stone powder • 2019

나의 작업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강릉에서 채집한, 단조롭지만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일상의 풍경과 그 안에서 소리 없이 느껴지는 기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매우 단조로운 방식으로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나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고 작업을 통해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비워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사소한 것까지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다시 일깨워 준다.

매일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 다시 꺼내어 본다. 그때의 감정을 하나둘씩 되짚어 보며 몇 번의 여과 과정을 거치면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작업은 점차 완성되어 간다.

하나씩 쌓아 올린 붓질이 모여 나무는 숲이 되고 물결은 바다가 되어 가는 과정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도 매우 닮아있다. 대상에 대해 충분한 시간 동안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겉모습이 아닌 그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 그 속에서 깊은 사유의 세계로 서서히 빠져드는 시간을 오래도록 즐기고 싶다



한선미

경계의 미학 The Aesthetics of Boundaries
72.2×53cm×2works • 한지, 아크릴, 털실 • 2023

늘 경계라는 뚜렷하지 못한 기준으로 인해 우리는 과하고 모자라거나 넘치고 부족하다는 판단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 계산되지 않은 우연과 필연의 교차점에서 예술의 표현 방법도 경계의 심판 대상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패션의 표현은 인간의 심리 현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본 작가는 회화와 패션을 결합한 작품을 통해 경계를 넘나드는 표현의 심리적 현상을 절제의 미학으로 담아보았다. 최소한의 드로잉과 색채 표현 속에서 쇼잉(Sewing) 기법, 이질적인 오브제를 활용한 콜라주 기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과의 절제된 조화를 통해 단순하지만 강렬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허정원

태양 1 The sun 1
162.2×130.3cm • 캔버스 위에 아크릴채색과 유채 • 2018

나의 작업은 사생의 대상이 되는 풍경이나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포한 생명과 죽음, 생성과 해체의 에너지를 느끼고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단지 '그리는 행위'가 아닌, 회화적으로 '살아내는' 실천이며, 반복과 우연, 기다림과 충돌, 생명의 리듬을 통해 회화의 본질에 다가서고자 하는 시도이다. 나의 회화는 그렇게 회화적으로 사생하고, 사유하며 존재한다.



인스
해람

印象解纜

화장아
그
경계

서해영

Seo Haeyoung

조형예술·디자인/조소/강사

202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대학원 박사 수료

200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대학원 석사 졸업

200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졸업

email hyseo71@gmail.com



서혜수

Suh Hyesoo

조형예술·디자인/도자전공/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도자예술학과 학사

email sue1004kr@daum.net



송신규

Song Shinkyu

조형예술·디자인/서양화/강사

201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2015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서양학과 학사 졸업

email ssk90417@naver.com

www.shinkyusong.com



엄소희

Um Sohee

패션디자인학과/패션디자인/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석사 졸업(B.A., M.A.)

서울여자대학교 박사 졸업(Ph.D)

email simple8401@kangwon.ac.kr



오종보

Oh Jongbo

조형예술·디자인/도자/강사

2017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졸업

2016 단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예학과 졸업

email ojbwkd111@naver.com



개인전 6회
2026 〈역기념비 프로젝트: 새들을 위한 기념비〉, 운수공간, 서울
2022 〈조각가를 위한 생츠퍼리1-바위 옮기기〉, 서울교육대학교 샘미술관, 서울
2020 〈보이지 않는 경계 잇기〉, 수림아트센터 김희수 아트갤러리, 서울
2018 〈여성조각가를 위한 행동공부화〉, 탈영역우정국, 서울
2016 〈여성미술가를 위한 도구 만들기-너와 나의 협업의 도구〉, 갤러리 조선, 서울
2014 〈창작지원작가전: 산에서 조각하기〉, 김종영미술관, 서울

수상
2025 제 36회 김세중 청년조각상 수상, 김세중 미술관, 김세중기념사업회, 한국
2023 제 2회 대한민국예술원-젊은예술가상 수상, 대한민국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개인전 10회
2023년 11회 개인전 『Quiet Order』 외 (서울, 북경, 도쿄, 오사카 등)
초대전 및 단체전
200여 회 (포시오, 오스터벡, 항주, 경덕진, 뉴칼레도니아, 서울 등)

– 국제도자학회(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 회원
– 현재, Ceramic Studio Cerasophie 대표, 한양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개인전
2025 그늘진 빛을 따라서, 문화공간역,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2023 나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합정자구 (서울특별시) 그 외 다수
단체전
2025 천안제로프로젝트 〈남겨진 자리들〉, 천안시립미술관, 천안
2024 시간을 수집하는 예술가 강릉X요르단, 명주예술마당 1층 컨벤션홀, 강릉
2023 제2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서유록, 강릉시립미술관 그 외 다수
레지던스
2024. 02.13~11.20 이종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21. 04.01~2022.03.31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그 외 다수

국내외 초대 및 개인전 17회
국내외 초대전 및 그룹전 260여회

한국한자문화산업발전연합회 이사장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이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이사
한국패션문화협회 이사
강원미술대전 운영위원

2024 한국도자재단 여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입주작가
2017-2023 양구백자박물관 문화상품개발 학예연구원
2016 한국도자재단 이천 세라피아 레지던시 입주작가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입선 (이천시)
2022 KCDF 스타상품 입선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2021 강원미술대전 우수상(회화) (한국미술협회)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입선 (이천시)
2019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입선 (청주시)
2019 강원미술대전 우수상(공예) (한국미술협회)
2017 뉴드로잉 프로젝트 입선 (양주시)
2016 광주백자공모전 입선 (광주시)

우현리

Woo, Hyunri

예술체육대학/패션디자인학과/교수

건국대학교 생활미술학과 학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석사

건국대학교 의류학과(텍스타일디자인 전공) 디자인학 박사

email woo405@kangwon.ac.kr



국내외 개인전 20회 이상
국내외 단체전 350회 이상

한국섬유미술가회 회장
한국한자문화산업발전연합회 고문
한국텍스타일협회 감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이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이병호

Lee Byungho

조형예술·디자인/조소/강사

201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조소과 석사

200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개인전
2025 환상의 빛, 스페이스 소, 서울
2023 PIECE, 페리지갤러리, 서울
2020 Three Shades, 스페이스 소, 서울
2018 Statue X Statue, 상업화랑, 서울
2017 Anthropometry, 스페이스 소, 서울
2016 Le Vide, 공의 영역, 갤러리 기체, 서울
2015 Party, 트레저힐 No.13, 크로스갤러리, 타이페이, 대만
2011 Shade Tree, 갤러리현대 16번지, 서울
2009 Blow-Up, 갤러리 잔다리, 서울
단체전 00회
레지던시
2015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타이페이
2013 경기창작스튜디오, 안산
2011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이연지

Lee Yeonji

패션디자인학과/패션디자인/강사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 수료

email yunji0526@naver.com



개인전 4회
국내 그룹전 및 초대전 다수 참여

(사)복식문화학회, (사)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사)한국패션디자인학회 회원

이예선

Lee Yeseon

조형예술·디자인/도자디자인전공/조교수

단국대학교 도예과 학·석사 졸업

단국대학교 조형예술학박사(Ph.D)

email yeasun@kangwon.ac.kr



국내·외 초대 및 개인전 17회
국내·외 기획, 초대 및 단체전 80여회

광화문아트포럼 올해의 작가상
한국기초조형학회 최우수 작품상 수상
한국기초조형학회 부회장, 대학도자교육협회 총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조형디자인협회 회원

현, 강원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조교수

이창민

Lee Changmin

조형예술·디자인/섬유디자인/조교수

건국대학교 텍스타일디자인과 학사

홍익대학교 섬유미술과 석사

시카고예술대학 Printmedia 석사

건국대학교 텍스타일디자인과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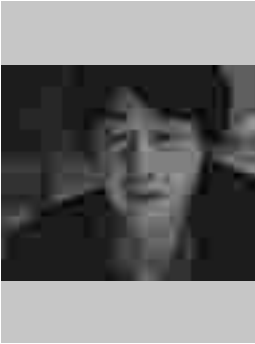
email changmin@kangwon.ac.kr



개인전 12회, 단체전 60여회

파라과이 아트페스티벌 〈복합미술부문〉 최우수작가상
제 18회 한국섬유미술비엔날레 젊은작가상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한국기초조형학회 논문 심사위원

이창훈 Lee Changhoon 조형예술·디자인/조소/조교수		주요 개인전 2025 유빙, 아트사이드갤러리, 서울 2020 꼬리, 페리지갤러리, 서울 2013 매우 길거나 짧은, 소마미술관, 서울 2008 nothing, Stuttgarter Kunstverein, 슈투트가르트, 독일 주요 단체전 2025 더 드로잉: 나에게 드로잉이란, 소마미술관, 서울 2025 우리들의 낙원, 문화역서울284, 서울 2022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강릉연구, 대추무파인아트, 강릉 2020 모두의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고양창작스튜디오, 금천예술공장, 경기창작센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	---	--

이혜진 Lee Hyejin 조형예술·디자인/섬유디자인/교수		개인전 16회 (서울, 강릉, 청주, 도쿄, 오사카) 단체전 130여회 제 47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수상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 정책과제 수행 10여회 (㈜더그리다 대표
--	---	--

임노식 Lim Nosik 조형예술·디자인/서양화/강사		개인전 2026 지탱하는 것들, 소투, 취리히, 스위스 2025 선산, 스페이스 윌링앤덜링, 서울, 한국 2024 그림자가 머무는 곳, 스페이스애프터, 서울, 한국 2023 깊은 선,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2023 긴 이야기,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2026 생성적 형상들, 송은, 서울, 한국 거리의 윤리, 타데우스 로팍, 서울, 한국 21세기 정물화, 에스더쉬퍼, 서울, 한국 레지던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금천예술공장, 인천아트플랫폼
---	--	---

장태영 Chang Taeyoung 조형예술·디자인/한국화/조교수		개인전 20회 2인전 3회 Art Fair~ both 10회(서울,중국,홍콩,싱가포르) 단체전 200여회 수상 제 6회 안건 회화 정신 전 청년작가 대상 수상 제 15회, 13회 단원미술대전 한국화 부분 최우수상 수상 제 3회 JW 중외 young art award 우수상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미술관, 단원미술관, 인제 백공미술관, 벤쿠버 영사관, 중국 연길시 자치 정부, 청원지방법원 진주 지원소, 전남 고흥 청소년 우주 센터, jw 중외제약, 주) 보코트, 가야 귀금속 및 개인소장.
---	---	--

전혜진 Jeon Hyejin 조형예술·디자인/도자디자인/조교수		개인전 9회 단체전 80여회 (주)이도아카데미 팀장 서울여성공예센터, 양구백자박물관 레지던시 입주작가
--	---	---

정명권 Jeong Myeongkwon 조형예술·디자인/도자/강사		2012-2015 MORRIS VAN AMPEL / MALLOW SPACE 디자이너 2023-현재 남서울대학교 외래교수 2025-현재 강원대학교 외래교수 현재 엔다스(NDARS) 대표 현재 루티지(ROOTAGE) 디자인 및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
---	---	--

정주란 Jeong Juran 패션디자인학과/패션디자인/강사		2025 한국디자인문화학회 동계 국제전시회 참가 2024 강릉한복문화창작소 개관기념 초대전 전시 2019 (사)한복문화학회 국제 초대의상전 현대한복 부문 전시 2018 (사)한복문화학회 국제 의상전 현대한복 부문 전시 2017 (사)한복문화학회 국내 초대 의상전 현대한복 부문 전시 2015 제10회 대한민국 한복·침선 문화상품 공모대전 대상 수상 2014 제9회 대한민국 한복·침선 문화상품 공모대전 입선 수상
--	---	--

정지현 Jeong Jihyun 조형예술·디자인/서양화/강사		영은미술관창작스튜디오, 파리시떼국제예술공동체, 가나장흥아틀리에 입주작가
--	--	--

최태훈 Choi Taehoon 조형예술·디자인/조소/강사		2025 《송은미술대상》- 송은, 서울, 한국 2025 《화두: 2025 생생화화》-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고, 수원, 한국 2024 《바람이 시작되는 섬, 가파도》-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2023 《필드》- P21, 서울, 한국 2023 《더비 매치: 감시자와 스파이》- 뮤지엄데, 서울, 한국 2022 《우드 타입》- GCS, 서울, 한국 2022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경북대 미술관, 대구, 한국 2022 《조각 총동》-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	---	---

하연수 Ha Yeonsoo 조형예술·디자인/한국화/교수		개인전 30회 (서울, 독일 비스바덴, 중국 상하이, 일본 오사카) 아트페어 Shanghai artfair('04), Art shanghai('06-'10), Sydney artfair('06), Affordable artfair(London'07), Form artfair(London'08), Bridge artfair Miami('07), KIAF('09,'18), SM'art(France 액상프로방스) 기획초대전 한국화의 현대전 변용-동양화 새천년 기획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베를린_Creation in Art:자구의 반란-귀환_회복_만남 (주한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 한국화 여성작가회 기획-예술_공간의 코드전(조선일보 미술관) '오래된 미래'와 '새로운 과거'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외 기획초대, 단체전 350여회
--	---	--

이 도록은 국립대학 육성 사업비로 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 · 강원대학교 미술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공유 시스템 구축(협력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문화 거점 조성)

과제 · Art Space 해람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

한선미

Han Sunmi

패션디자인학과/패션디자인/강사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 수료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 졸업

email hsm99517@kangwon.ac.kr



개인전 9회 (일본 도쿄, 서울, 대구, 강릉)

국내외 그룹전 및 초대전 30여 회

2022 Asia Network Beyond Design Exhibition-GRAND PRIX 수상

2021 Asia Network Beyond Design Exhibition-EXCEIENT AWARD 수상

2021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제21회 국제 FABI 의상전 입상

2018 제19회 신사임당미술대전 섬유부문 특선

2015 제1회 서울국제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장려상

현재 사)한국한자문화산업발전연합회 사무국장

현재 강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출강

허정원

Huh Jeongwon

조형예술·디자인/서양화/부교수

2013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양화전공, 석·박사

2006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전공, 교육석사

1993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email jwjwhuh@kangwon.ac.kr

www.huhjeongwon.com



개인전(선별)

2025 《A 'Painterly' Approach to 'Drawing'》, Galerie l'onyx, Montriol

2024 《회화적으로 사생하다-흐르다》, Gallery LP Seoul, 서울

2021 《'회화적'으로 '사생'하다 -흐름》, 강릉시립미술관, 강릉

2020 《'회화적'으로 '사생'하다Ⅱ》, 아트비트 갤러리, 서울

2018 《'회화적'으로 '사생'하다》, 금호미술관, 서울

외 다수의 개인전

그룹전(선별)

2026 《Art Busan》, BEXCO 1 Hall, Busan

2025 《2nd stay or to go》, 증산홀, Taiwan

2025 《A TOI DE MOI (너에게 난 나에게 넌)》, Atelier Circulaire, 몬트리올

2023 《My Love》, 티라즈 미술관, 요르단

외 다수의 단체전과 프로젝트 기획

아트 스페이스 **해람** 개관 기념전
ART SPACE HAERAM

인상
해람
환상하느
경계

2026.09.16. - 2026.10.15.

주최 | 강원대학교

주관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조형예술·디자인학과

발행일 | 2026. 09. 15.

발행처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총괄·기획 | 장태영

디자인 및 인쇄 | 디자인센 ssensen@naver.com

이 도록에 실린 이미지와 글은 아트스페이스 해람과 작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트스페이스 해람



아트 스페이스 해람
ART SPACE HAERAM

디자인 의도

'해람'이라는 글자를 하나의 연속된 획으로 재해석하여, 글자 자체가 하나의 조형 언어가 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직선과 곡선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는 예술을 통해 사람과 공간, 지역사회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갤러리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특히 강조된 주황색 획은 강원대학교의 상징색을 반영하여 대학의 정체성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동시에 주황색과 파랑색 획은 바다에 닻을 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해람'이 지닌 의미처럼 누구나 마음을 내려놓고 머물며 예술과 마주할 수 있는 안식처를 표현합니다.

강원대학교에 새롭게 조성되는 아트스페이스 해람은 지역과 대학, 예술을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입니다. 마크는 안정과 시작을 의미하는 닻의 상징 위에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과 창의적인 만남이 이어지는 공간의 비전을 담았으며, 간결하고 현대적인 획의 조형미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열린 소통, 미래를 향한 도전의 가치를 함께 표현했습니다.

	세로기본형	가로기본형
영문		
국문		
국영문 혼용		
마크강조형		
색상		

시그니처 조합은 교표와 로고타입 등이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조합된 경우를 말하며 , 각각의 요소들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적용하는 매체에 따라 적절한 시그니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ART SPACE **HAERAM**